

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

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는 후지산 북쪽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요시다구치 등산로 입구에 자리한 신사입니다. 이 신사는 수세기 동안 에도(현재의 도쿄)에서 도착한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등산을 시작했던 지점입니다.

이 신사의 기원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서기 110 년 고대 일본의 전설적인 영웅인 야마토타케루가 동쪽을 정벌할 때 이 신사 근처의 언덕에 올라가 후지산을 우러러보며 경의를 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788 년에 현재의 장소에 신사가 건립되었습니다. 17~18 세기에는 후지코 신앙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에도에서 이 신사를 가려는 새로운 순례자의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. 이 신사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

거대한 소나무 고목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참배길을 빠져나오면 ‘삼국제일산(三國第一山)’이라고 쓰인 현판을 내건 당당한 도리이가 나타납니다. 여기서 ‘삼국’이란 일본과 중국, 그리고 인도를 가리키는데 고대의 일본이 아는 세계는 이 세 나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. 이 도리이에는 신사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, 후지산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하다고 적혀 있습니다.

3 채의 본전

현재의 본전이 서있는 신사의 경내에는 이전의 본전 2 채가 세워져 있습니다. 좌측 안쪽에 있는 히가시노미야(東宮) 본전(本殿)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1223 년에 가마쿠라 막부의 제 2 대 집권자인 호조 요시토키(1163~1224)에 의해 세워졌습니다. 1561 년에 이 본전은 다이묘(넓은 영지를 다스린 영주) 다케다 신겐(1521~1573)으로부터 신사에 기증되었습니다. 우측 안쪽에 있는 니시노미야(西宮) 본전은 히가시노미야 본전보다 약간 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지 10 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히데요시의 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1594 년에 건립되었습니다. 배전(拜殿: 참배하기 위한 건물) 뒤에 있는 현재의 본전은 에도 시대(1603~1868)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(1543~1616)의 가신에 의해 1615 년에 건립되었습니다.

이 신사의 또 다른 특이한 특징은 배전과 본전의 뒤편에 일본에서 변영의 신으로 알려진 에비스와 다이고쿠텐을 모시고 있다는 점입니다. 에비스와 다이고쿠텐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참배자는 후지산을 등쳐야만 하는데 이는 센겐 신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참배 방법입니다. 어쩌면 이 위치는 두 기둥의 신이 영원히 후지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었는지도 모릅니다.